남다른 나를 만든다

이미지 전략가 하민희씨

누군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어물쩡거리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건 이미 자신에 대한 컨셉이 없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그야말로 '이미지 경영'의 시대이다. 국가와 기업은 물론 제품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미지로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 그 성과와 승패가 달라진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한국을 알게 되고 좋은 인상을 받은 외국인들에게 뉴코리아의 이미지가 후광으로 작용하여 가격정책이나 계약에 얼마나 유리한 영향을 미쳤던가? 이미지를 일종의 자산처럼 활용하여 극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 전략가 하민회 씨. 그녀에게 들어보는 이미지 전략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미지 경영이란? 요즘 거리를 거닐다 보면 '효리'가 너무 많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효리가 될 수는 없다. 이미지 경영이란 자신만의 컨셉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업이건 제품이건 개인이건,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미지 전략가의 어린시절…. 글짓기와 웅변을 좋아했다. 전국 어린이 글짓기, 웅변대회에서 매년 입상할 정도로. 더구나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은 대학 입학 후에 용돈을 주신 적이 없었다. 먹고 살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자기소개서 때문에 나를 채용했다는 업체들이 많았다. 에세이,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남다른 나를 표현하려 노력했다.

무슨 일들을 했나?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다.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으로 4년 정도 근무했고, SBS 리포터, 호텔 홍보실, 천리안 꽁트작가, 심지어 시나리오협회에서 영화공부도 했다. '98년도부터는 프리랜서로 홍보마케팅 일을 했는데, 주노헤어에서 기획한 '미소서비스 리콜제'가 크게 성공하면서 이미지 컨설턴트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고자 마음먹었다.

다른 누군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기업 이미지나 CEO 이미지 컨설턴트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들의 이미지 컨셉을 잡기 위해선 우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련한 CEO와 대화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박학다식해야 한다. 모든 분야에 있어 다양한 지식을 쌓기 위해 정말 많은 책들을 읽는다. 매년 생일마다 대형서점들로부터 VIP 고객에게 보내는 선물꾸러미가 올 정도다.

일하는 보람 언젠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하민회 씨죠?"라며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직했는데, 산업공단에서 주최한 내 강연을 듣고 힐튼호텔에서 VIP 텔레마케터로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게 됐다며 정말 고맙다는 거다.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이미지를 찾게되어 너무 기쁘다던 그녀를 보며 나도 많은 힘을 얻었다.

벤처인들에게 한마디 트렌드를 파악해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도 트렌드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떠들고 싶어 하는 트렌드 말이다. 그래서 기업 홍보 담당자들에게는 영화를 많이 보라고 권한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시대 프레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벤처 | CEO를 | 위한 | 이미지 | 컨설팅 |

- **홍보 마인드를 가져라** | 벤처기업은 CEO가 일인다역을 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CEO들이 연구원 출신이라 나서기 싫어하고 품질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PR하지 않으면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작은 회사라도 이미지 컨셉을 정확히 세우고 전달하라.
- **시대에 맞는 컨셉을 가져라** | CEO 브랜드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경영인에게 있어 이미지는 소중한 의미가 됐다. 급속한 변화 속에 그저 반복해서 자신만을 알리기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경영인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에 적합한 변화모델을 설정해 기업의 가치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미지를 경영해야 한다.
- **감성에 밝아라** | 문화생활에 앞장서서 부드러운 CEO임을 나타내라. 예를 들면 'CEO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영화', '오늘의 좋은 메시지 '등을 보내 직원들에게 소프트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감성적인 말 한마디가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 **사석에서의 생활을 조심하라** | 좋지 않은 얘기는 모두 사석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CEO 술버릇이 어떻다던지, CEO들끼리 몰려다니며 비싼 술만 먹어 하루 술값이 얼마라던지…. 등등의 소문도 결국은 사석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사석에서의 실수를 조심해야 한다.
- **회사에 대한 기록을 남겨라** | 기록이 없어서 PR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고사 지내던 사진에서부터 각종 행사, 신제품, 표창 등 회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외국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사소해보이지만 작은 기록들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